

중학생의 학교따돌림 피해경험과 건강상태, 스트레스 대처행동

최미경

관동대학교 간호학과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Health Status and Stress Coping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Mi-Kyoung Choi

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relation to social support, self-esteem, stress coping behavior, and health status. **Method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on a convenience sample of 441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analysis procedure included frequency, χ^2 -test, t-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It was found that 18% of the subjects were bullied by other student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factors such as sex(OR=2.35, p=.006), aggressive coping behavior(OR=1.18, p=.028), and health status(OR=1.04, p=.002) were significant affecting factors. **Conclus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to prevent middle school students' bullying victimization, it is necessary to design intervention programs that considering their health status and stress coping behavior.

Key words: Bullying victimization, Middle school student. Health status, Stress coping behavior

I. 서론

중학교에서 따돌림 발생률이 높게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Takatoku, 1999), 최근의 우리나라 실태조사에서도 따돌림을 포함한 학교폭력 발생률이 중학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그런데, 중학생의 학교따돌림 피해경험은 그 시기가 인생주기의 발달단계에 있는 만큼 그 후의 그들의 사회 적응 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돌림의 용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집단따돌림, 집단괴롭힘, 학교폭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bullying'이라는 용어는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학생들에 의해 반복적

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공격적, 고의적 행동이며, 힘의 불균형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라고 한 Olweus (1994)의 정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따돌림 현상에 있어서는 따돌림당하는 사람의 주관적 고통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정의에 더하여 상대방의 고통을 포함한 정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돌림 피해경험은 외상성 장애의 하나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일으키게 되는데(Herman, 1992), 노르웨이의 Olweus는 따돌림의 3가지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학교따돌림 현상을 '또래에 의한 학대'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Ikejima, 2009). 이는 따돌림 피해경험이 단지 급성 일과성 스트레스 장애가 아닌, 학대경험과 같

Corresponding author : Mi-Kyoung Choi

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 Naegok-dong, Gangneung-si, Gangwon-do, Korea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내곡동) 관동대학교 간호학과(우: 210-701)

Tel: 033-649-7615 Fax: 033-649-7620 E-mail: mkchoi@kd.ac.kr

▪ 투고일: 2013.08.12

▪ 수정일: 2013.09.15

▪ 게재확정일: 2013.09.23

이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외상성 장애 수준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자아정체성과 성격형성의 발달단계에 있는 초기청소년기 대상자의 경우 이러한 학대 수준의 경험에 의한 후유증은 장기적 경향을 띠게 되어 그 후의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들 피해 대상자들은 지속적인 자존감 저하를 나타내게 되고 불안과 분노,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갖게 된다(Egan & Perry, 1998; Rigby & Cox, 1996; Schafer et al., 2004). 그리고 사회적응 과정에서의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다양한 일탈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실제로 여러 연구(Bender & Lösel, 2011; Jung & Park, 2010; Olweus, 2011)에서 등교거부, 폭력, 알코올 남용 및 자살 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 문제가 따돌림 피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돌림 연구에서 따돌림 피해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그러한 특성들이 매우 안정적이고 시간적 고정성을 지니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악순환의 조건이 될 수 있다(Choi, 2001)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취약성(vulnerability)은 다른 학생들과 비교적 이질적 측면을 보이는 피해대상자의 특성을 말하는데 이는 따돌림당하기 쉬운 성향, 즉 상대방으로부터 따돌림 충동의 공격성을 유발하기 쉬운 성향을 의미한다(Takekawa, 1993). 피해대상자들의 이러한 특성 내용을 보면, 대체로 신체적으로 힘이 약하고 친구가 적으며 평범하지 않은 외모, 좋지 않은 성적, 낮은 경제수준, 전학온 학생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낮은 가족기능,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낮은 사회적 지지, 낮은 자존감과 자아개념, 의존적 성격, 수줍은 성격 등과 같은 환경적, 사회·심리적, 개인의 내적 요인들이 거론되고(Kim & Wang, 2000; Konishi & Hymel, 2009; Olweus, 1994; Perry, Kusel, & Perry, 1988)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부분적으로 따돌림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가 되기도 하나, 문제는 그러한 특성들이 반복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악순환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따돌림 피해대상자의 특성과 관련한 연구는 따돌림의 조기발견과 예방에 유의한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최근의 학생들은 학벌위주의 경쟁사회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입시위주의 교육에 매달려 지속적으로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형성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그런데, 익숙한 대인관계 기술을 갖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선배나 교사, 친구와의 나름대로의 다양한 인간관계는 항상 존재하는 법이어서, 언제든지 갈등 상황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개인주의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기기 중심의 생활환경으로 인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할 사람을 찾지 못하거나 상담할 만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돌림은 그 자체가 심적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나(Jung & Kim, 2000)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 역시 따돌림 현상을 낳게 하는 직·간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Okayasu & Takayama, 2000). 학교따돌림 피해대상자들의 경우 보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Suzuki, 1998)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피해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따돌림 현상은 그 특성상 가시화하기 힘든 경향이 있어(Ikejima, 2009) 주변의 가족이나 교사가 알아차리기 힘든 면이 있다. 피해대상자의 경우 자존심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상담을 할 사람이 없어 대부분 혼자서 힘든 상황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Olweus, 1993; Sakai, 2005). 따돌림 피해대상자들의 이러한 경향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따돌림 피해 자체로 인한 후유증은 그들로 하여금 정신적, 신체적 증상의 발현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많다. 따돌림 피해대상자의 평상시의 자각증상을 중심으로 한 건강상태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 피해대상자를 이해하고 따돌림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따돌림 피해학생의 특성과 관련한 연구를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환경적, 사회·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며 스트레스 대처나 건강상태를 함께 포함하여 그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따돌림 피해경험 정도를 알아보고, 피해군의 특성을 건강상태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던 사회적 지지, 자존감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따돌림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강원도 일 도시지역 일부 중학생의 학교따돌림 피해와 관련한 요인을 사회적 지지,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행동, 건강상태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확인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는 강원도 일 도시지역 4개 중학교의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학교에서 3-4개 학급씩 13개 학급에서 451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2년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설문지 조사를 행하였다. 조사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여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를 행하였고, 조사는 연구를 목적으로 행하므로 설문지에는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통계처리되어 개인 정보가 누출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분석대상자수는 G*Power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90을 투입한 결과 최소표본수는 374명으로 나타나, 설문지 회수과정에서의 응답률과 탈락률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의 451명은 적절한 조사대상자수로 생각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항목의 누락이 많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정확성이 결여되어 분석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9명과 따돌림 피해경험 조건에서 제외된 1명을 합하여 총 10명을 제외한 441명을 분석대상자수로 결정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성별과 형제수, 부모와의 동거 여부, 가족수, 부모의 교육수준, 경제수준, 성적, 친한 친구수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지난 1년간의 따돌림 피해경험,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 자존감, 그리고 「적극적」 대처, 「소극적/ 회피적」 대처,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 및 「공격적」 대처 등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그리고 건강상태로 구성되었다.

지난 1년간의 따돌림 피해유무 조사에 있어서는 설문지에 따돌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노는데 끼워주지 않거나 다른 학생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무시’,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차거나 미는 등의 신체적 폭력’, ‘외모나 공부, 가정형편, 성격 등과 관련하여 놀리거나’, ‘강제로 심부름이나 숙제를 시키거나 가방을 들게 하는’ 등의 신체적 폭력, 놀림, 소외, 협박 등의 내용이 따돌림에 해당됨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일정한 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를 말하고 한 두 번의 장난은 따돌림이 아님을 설명하고 조사를 행하였다. 한편 따돌림 당한 후 ‘어느 정도 고통스러웠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답변 즉 ‘아무렇지도 않았다’, ‘별로 고통스럽지 않았다’, ‘조금 고통스러웠다’,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의 4가지 답변 중, 따돌림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한 1명의 학생이 ‘별로 고통스럽지 않았다’라고 답하여 분석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3. 연구도구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Dubow와 Ulman의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SSAS)의 척도를 Han (1996)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준다’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등의 친구지지(7문항),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준다’ ‘우리 가족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등의 가족지지(8문항),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등의 교사지지(8문항)의 3개 하위 영역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 ‘정말 그렇다’에 1-5점을 부과하였다. 문항의 내용이 부정적인 경우 역으로 점수를 부과하여 계산하였고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별 지지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0.853$ 이었다.

2) 자존감

Cheek & Buss (1981)의 자존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이 척도는 Rosenberg의 척도와 .88의 상관을 가지며 거의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나는 자신

이 있다' '나는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등의 자존감을 나타내는 2문항과 '나는 잘못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등의 자존감 결여를 나타내는 4문항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인 2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 ~ '정말 그렇다'에 1-4점을 부과하였고, 자존감 결여를 나타내는 4문항에 대해서는 역으로 점수를 부과하였다. 점수의 분포는 6-24점으로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0.683$ 이었다.

3) 스트레스 대처행동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Min & Yoo (1998)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Park (2001)이 수정, 보완한 20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하위 영역에 대해 각 3문항씩 12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행동과 '혼자 조용히 운다'와 같은 「소극적/ 회피적」 대처, '부모님께 나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한다' 등의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복수할 생각을 한다'와 같은 「공격적」 대처 등, 4개의 하위 영역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 '항상 그렇다'에 1-4점을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대처행동을 많이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0.722$ 였다.

4) 건강상태

Gurin, Veroff, & Feld (1980)의 Symptom Items 및 Cornel Medical Index를 기초로 하여 선정한 40개의 항목의 건강증상 조사서를 Oh & Han (1990)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내용을 Shin (1996)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 '발이 떨린다' '머리가 아프다' 등의 신체증상과 '외로운 느낌이 든다'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일에 흥미가 없다' 등의 정신증상을 나타내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 ~ '매우 자주 있다'에 0-3점을 부과하여 가산한 평균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

수가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음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42$ 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SAS통계프로그램(Ver 9.1)을 사용하였고, 모든 측정도구에 대해서는 각 문항에 대한 점수를 가산한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지지 척도는 각각 하위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따돌림 피해경험 유무에 대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χ^2 test로 검토하였고,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행동, 자존감 등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따돌림 피해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따돌림 피해경험을 반응변수로 하고,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수준 .05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와 p값 .052를 나타낸 자존감을 설명변수로 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행하여 각 변수별 오즈비(OR)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따돌림 피해경험 유무와 일반적 특성

지난 1년간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441명 중 80명인 18%로 나타났다.

남녀의 비율은 절반 정도로 비슷하였고 형제가 없는 사람은 약 19%, 형제수가 1-3명인 경우는 78%였다. 대상자의 약 81%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고, 동거가족수는 3-4명인 경우가 약 80%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는 대상자는 약 70%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52%, 어머니의 43% 정도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수준은 대상자의 약 58%가 '보통', 약 25%가 '상'이라고 답하였다. 학교성적과 관련해서는 '상' '중' '하'가 각각 약 31%, 25%, 44%로 나타났고 친구수와 관련해서는 '4명 이상'의 친한 친구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약 78%, '한명도 없다'고 답한 사람은 약 3%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by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n=441)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441)	Bullying victimization (n=80)	Non-bullying victimization (n=361)	χ^2	p
Gender	Female	215(48.8)	26(32.5)	189(52.4)	10.33	.001
	Male	226(51.3)	54(67.5)	172(47.7)		
Sibling	None	83(18.8)	16(20.0)	67(18.6)	4.43	.109
	1-3	342(77.6)	58(72.5)	284(78.7)		
	≥4	16(3.6)	6(7.5)	10(2.8)		
Living with parents	Yes	359(81.4)	63(78.8)	296(82.0)	0.46	.500
	No	82(18.6)	17(21.3)	65(18.0)		
Number of family members	1-2	35(7.9)	7(8.8)	28(7.8)	0.16	.923
	3-4	352(79.8)	64(80.0)	288(79.8)		
	5-6	54(12.2)	9(11.3)	45(12.5)		
Mother's occupation	Housewife	131(29.7)	24(30.0)	107(29.6)	0.00	.949
	Have an occupation	310(70.3)	56(70.0)	254(70.4)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194(47.8)	42(59.2)	152(45.4)	4.46	.035
	≥College	212(52.2)	29(40.9)	183(54.6)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218(56.9)	4(58.6)	177(56.6)	0.10	.758
	≥College	165(43.1)	29(41.4)	136(43.5)		
Economic status	High	110(24.9)	21(26.3)	89(24.7)	0.68	.712
	Middle	254(57.6)	43(53.8)	211(58.5)		
	Low	77(17.5)	16(20.0)	6(16.9)		
School record	High	136(30.8)	18(22.5)	118(32.7)	7.30	.026
	Middle	111(25.2)	16(20.0)	95(26.3)		
	Low	194(44.0)	46(57.5)	148(41.0)		
Number of close friends	None	11(2.5)	6(7.1)	5(1.4)	9.20	.010
	1-3	85(19.3)	17(20.0)	68(19.1)		
	≥4	345(78.2)	62(72.9)	283(79.5)		

Note: *Missing data excluded

2.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행동, 건강상태의 평균점수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인 친구지지는 26.47점, 가족지지는 30.12점, 교사지지는 24.40점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역은 문항수가 달라 각각을 문항수로 나누어 5점 만점의 평균점수로 환산했을 경우, 친구지지 3.78, 가족지지 3.77, 교사지지 3.05로 나타나 모두 중간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교사지지는 다른 두 영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자존감은 17.32로 중간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적극적」 대처 8.20, 「소극적/ 회피적」 대처 5.77,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 6.23, 「공격적」 대처 6.19로 나타나, 「적극적」 대처방법을 보다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문항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정신신체증상의 평균점수는 31.94로 나타났다<Table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Variables	Mean(±SD)	Min	Max
Friends' support	26.47(± 5.33)	8	35
Family' support	30.12(± 7.51)	9	40
Teacher's support	24.40(± 7.06)	8	40
Self-esteem	17.32(± 2.99)	6	24
「Active」coping	8.20(± 2.11)	3	12
「Passive/avoidant」coping	5.77(± 2.12)	3	12
「Social support seeking」coping	6.23(± 2.00)	3	12
「Aggressive」coping	6.19(± 2.15)	3	12
Health status	31.94(±10.62)	21	84

<Table 3> Mean differences of main variables by bullying victimization

Characteristics	Bullying victimization (n=80) Mean(±SD)	Non-bullying victimization (n=361) Mean(±SD)	t	p
Friends' support	25.54(± 5.28)	26.67(±5.33)	1.70	.089
Family support	29.83(± 7.23)	30.19(±7.58)	0.37	.708
Teacher's support	22.39(± 7.29)	24.85(±6.95)	2.81	.005
Self-esteem	16.76(± 3.39)	17.48(±2.87)	1.95	.052
「Active」coping	7.74(± 2.12)	8.25(±2.10)	1.21	.225
「Passive/avoidant」coping	5.87(± 2.36)	5.75(±2.07)	-0.48	.635
「Social support seeking」coping	5.81(± 1.98)	6.33(±2.00)	2.09	.038
「Aggressive」coping	6.94(± 2.40)	6.03(±2.06)	-3.43	.001
Health status	37.36(±13.09)	30.74(±9.60)	-5.20	<.001

3. 따돌림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따돌림 피해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성별($\chi^2=10.33$, $p=.001$)과 아버지의 교육수준($\chi^2=4.46$, $p=.035$), 성적($\chi^2=7.30$, $p=.026$), 친구수($\chi^2=9.20$, $p=.010$)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따돌림 피해군에 있어 남학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 학교성적이 하위권인 경우, 친구가 한명도 없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Table 1>.

4. 따돌림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건강상태

따돌림 피해군과 그렇지 않은 군은 교사지지($t=2.81$, $p=.005$),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t=2.09$, $p=.038$), 「공격적」 대처($t=3.43$, $p=.001$), 건강상태($t=-5.20$, $p<.001$)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따돌림 피해 대상자는 교사지지가 약했으며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를 보다 적게, 「공격적」 대처를 보다 많이 행하고 건강상태가 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은 유의수준 5%미만을 충족시키지는 않았으나($t=1.95$, $p=.052$) 따돌림 피해군에 있어 보다 약하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victimization: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n=441)

Variables	Categories	OR	95% CI	p
Gender	Female	1		
	Male	2.35	1.28-4.34	.006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1		
	≥ College	0.72	1.28-4.34	.273
School record	High	1		
	Middle	0.89	0.39-2.02	.138
	Low	1.46	0.73-2.92	.382
Number of close friends	None	1		
	1-3	0.22	0.04-1.33	.082
	≥4	0.39	0.08-1.92	.680
Teacher's support		0.98	0.94-1.02	.226
Self-esteem		1.01	0.92-1.11	.788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0.91	0.77-1.06	.227
「Aggressive」 coping		1.18	1.02-1.36	.028
Health status		1.04	1.02-1.07	.002

5. 따돌림 피해경험에 대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따돌림 피해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따돌림 피해 경험을 반응변수로 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행한 결과, 성별(OR=2.35, p=.006), 「공격적」 대처(OR=1.18, p=.028), 건강상태(OR=1.04, p=.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35배, 「공격적」 스트레스 대처행위를 많이 할수록 1.18배,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1.04배씩 따돌림 피해경험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IV. 논의

본 연구에서 지난 1년간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441명중 80명인 18%로 나타났다. 따돌림의 발생률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는 조사연구마다 따돌림의 정의와 범위, 기간의 설정 등이 모두 달라 그 결과의 폭이 큰 탓에 직접 비교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따돌림의 정의 및 1년이라는 기간의 설정 등, 본 연구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연구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18%는 지방 소도시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Choi, 2001)에서의 26%보다는 낮았고, 서울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Choi, Kim, Park, Lee, & Koh, 2004)에서의 중학생의 4%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이들 결과만을 가지고 비교해 본다면, 본 연구결과는 보편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높은 따돌림 발생률을 보인다는 보고(Olweus, 1993), 그리고 대도시 지역에 비해 비교적 산업화가 덜된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보고(Choi et al., 2004)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방법을 통한 반복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따돌림 피해군은 비피해군에 비해 성별, 아버지의 교육수준, 성적, 친한 친구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학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고 성적이 좋지 않으며 친한 친구가 한명도 없는 경우가 많았다. 성별과 관련해서는 중학생에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따돌림 발생률이 보다 높게 나타난 기존의 다른 연구결과(Choi et al., 2004; Jeon, 2006; Olweus, 1993; Yoo

& Lee, 1999)와 일치하였다. 따돌림 피해군에 있어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결과는 본 피해 대상자의 따돌림과 가정내 부모의 역할과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로도 생각되었다. 성적은 학교적응에 중요한 변수(Koo, 2007)로 따돌림이나 폭력 등과는 문제행동의 표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데, 본 연구에서 보여준 결과 역시 성적을 매개로 한 학교적응 문제가 따돌림 현상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친구수와 관련하여 피해군에 있어 친구가 없는 경우가 보다 많게 나타난 결과는 보편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대상자는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보인다는 보고(Lee & Kwak, 2000)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따돌림 피해대상자의 이러한 경향은 따돌림을 당한 후 형성된 자존감 저하나 불안, 분노, 적대감 등과 같은 정신적 문제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형성이 어려워진 때문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과 관련하여 따돌림 피해군은 교사지지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와 따돌림 피해발생률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다른 연구결과(Jang & Seong, 2007)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하위 영역 중 교사지지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는 이들 초기청소년기 대상자들에 있어 친구지지가 가족지지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된 기존의 연구(Kwak, 2000)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의 따돌림 현상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본 연구대상자의 따돌림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교사의 역할을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자존감은 유의수준 .05 미만을 충족시키지는 않았으나($p=.052$), 피해군의 경우 보다 자존감이 낮았다. 보편적으로 자존감은 따돌림 피해대상자에 있어 일관되게 낮게 보고되고(Choi, 2001; Egan & Perry, 1998; Rigby & Cox, 1996) 있는데,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낮은 자존감이 따돌림 피해의 원인일 수도 있고 따돌림 피해의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낮은 자존감이 따돌림 발생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이들 피해대상자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관련해서 따돌림 피해군은

‘선생님이나 부모,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적게 취하고,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에게 복수할 방법을 생각하거나, 화를 내거나 따지거나 욕을 하는’ 등의 「공격적」 대처행동을 보다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으로 따돌림당하는 대상자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Olweus, 1993; Sakai, 2005)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들은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존심 때문에, 또는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 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와 같이 피해 대상자들이 보다 「공격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취하는 것은 대부분의 따돌림 피해대상자들이 따돌림당한 후 ‘복수하고 싶었다. 죽고 싶었다’ 등의 극단적인 정서를 갖게 된다는 점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정서적 경험은 분노, 적개심 등과 같은 정서로 내재화되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 대처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몇몇 연구(Lee, 1998; Tolbin, Schwartz, Gorman, & Abou-Ezzeddine, 2005)에서는 따돌림 피해대상자의 경우 높은 수준의 분노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이와 같은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특성을 감안할 때 Suzuki (1998)가 지적한 바와 같이, 따돌림의 재발 및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대상자들의 대처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내용에는 사람들과의 관계형성 기술과 주변의 지지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활용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바람직한 분노 표출 방법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군의 건강상태 점수는 $37.36(\pm 13.09)$, 비피해군은 $30.74(\pm 9.60)$ 로 피해군의 경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t=5.20, p<.001$)를 보였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같은 척도로 건강상태를 조사한 연구가 없어 직접비교가 어려우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 (2001)의 37.2점, Ji (2002)의 15.6점에 비해 높은 수치로, 적어도 본 연구대상자에 있어 따돌림 피해와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따돌림 피해경험에 대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

해 행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2.35배, 「공격적」스트레스 대처행위를 많이 할수록 1.18배,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1.04배씩 따돌림 피해경험을 할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있어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성적, 친구수 등과 같이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 중요시되어 온 요인들은 따돌림피해의 위험요인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또한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중요한 변수로 보고되고 있는 자존감과 같은 내적 요인과 교사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 또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제외하고는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건강상태만이 따돌림의 위험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만큼 이들 피해대상자들의 따돌림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트레스 관리방법이 보다 중요하고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상태가 학교따돌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평상시의 건강상태에 관심을 갖고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구체적인 정신신체증상과 학교따돌림과의 관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강원도 일 도시지역 중학생 441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따돌림 피해경험 유무를 파악하고 따돌림 피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회적 지지,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행동,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연구결과, 지난 1년간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8%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시점에서 따돌림의 정의와 범위, 기간을 제한적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낮지 않은 수치인데, 앞으로 따돌림 피해와 관련하여 동일한 조건을 갖춘 반복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돌림 피해대상자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성별, 아버지의 교육수준, 성적, 친한 친구수, 교사지지,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 및 「공격적」 대처행동, 건강상태 등의 요인이 관련 요인으로 나타나, 대체로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따돌림 피해경험에 대한 위

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남학생과 「공격적」 대처행동, 건강상태만이 위험요인으로 부각되어, 성별을 제외하고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는 다른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자존감, 사회적 지지 등은 위험요인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피해대상자들의 따돌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 관리방법의 개발과 평상시의 건강상태를 통한 예측이 보다 중요하고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따돌림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학교 현장에서 따돌림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교사의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는 평상시의 따돌림 교육, 따돌림 피해 학생의 입장에 선 이해와 지지, 따돌림 발생시의 개입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따돌림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바람직한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 분노표출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 따돌림의 조기발견을 위해 평상시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정신신체증상과 따돌림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Bender, D., & Lösel, F. (2011). Bullying at school as a predictor of delinquency, violence and other anti-social behavior in adulthood.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21*, 99-106.
- Chee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30-339.
- Choi, M. K. (2001). A study on the bullying in primary school. *Kwandong Medical Journal, 5*, 57-65.
- Choi, M. K., Kim, K. I., Park, Y. C., Lee, D. G., & Koh, B. J. (2004).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ho were bullied among Chinese, Korean and Korean-Chinese juveniles. *Kwandong Medical Journal, 8*(2), 13-22.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299-309.
- Han, M. H. (1996). *A study on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s, and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Herman, J. L. (1992). *Trauma and recovery*. New York, NY: Basic Books.
- Ikejima, T. H. (2009). A study on the problem of bullying from the viewpoint of school educational clinical supports. *Bulletin of School of Professional Development in Education*, 1, 2-37.
- Jang, M. H., & Seong, H. G. (2007). The relationships between bullying, social identity and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1(1), 77-87.
- Jeon, Y. Y.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bullying behavior, social skill,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 Ji, E. S. (2002). *A Comparative study of health state and school adaptation between divorced family's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H. K., & Kim, K. H. (2000). The perception of teenagers on the bul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1), 137-147.
- Jung, H. W., & Park, S. H. (2010). The changed of victimization and the predictors in the early adolescence. *Korean Criminological Reviews*, 21(1), 149-173.
- Kim, K. H., & Wang, S. J. (2000). The par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bullying an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rejected children. *Journal of Student Guidance*, 27, 85-107.
- Kim, K. S. (2001). *Factors affec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 health state in fishing commun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Korea.
- Konishi, C., & Hymel, S. (2009). Bullying and stress in early adolescence: The role of coping and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9(3), 333-356.
- Koo, B. Y. (2007).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on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8(2), 707-718.
- Kwak, K. J. (2000). The negative role of peer relationships: New paradigm for adolescent's social and emotional behavior pattern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3(3), 77-89.
- Lee, C. J., & Kwak, K. J. (2000). Self-concept & social support according to bullying type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3(1), 65-80.
- Lee, S. K. (1998). *Influencing factors on bullying at schoo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A plan for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of school violence*. Seoul, Korea: Author.
- Min, H. Y., & Yoo, A. J. (1998). Development of daily hassles coping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7), 83-96.
- Oh, G. S., & Han, J. S. (1990). A Study on the grief and coping pattern of mothers who have a chronically ill child. *The Korean Nurse*, 29(4), 73-87.
- Okayasu, T., & Takayama, I. (2000). Psychological stress of victims and bullies in junior high school. *The Japane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8(4), 410-421.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United Kingdom: Blackwell.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Olweus, D. (2011). Bullying at school and later criminality: Findings from three Swedish community samples of males.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21, 151-156.
- Park, J. A. (2001). *Relationship between coping with stress in school-aged children and their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Perry, D. G., Kusel, S. J., & Perry, C. L.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Rigby, K., & Cox, I. (1996). The contribution of bullying at school and low self-esteem to acts of delinquency among Australian teenagers.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21, 609-612.
- Sakai, R. (2005). A consideration about a group of bullying at school. *Aichigakuin University bulletin of the faculty of psychological & physical sciences*, 1, 41-49.
- Schafer, M., Korn, S., Smith, P. K., Hunter, S. C., Mora-Merchan, J. A., Singer, M. M., & Meulen, K. V. (2004). Lonely in the crowd: Recollections of bullying. *Th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2(3), 379-394.
- Shin, H. S. (1996). A study of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6(4), 809-819.
- Suzuki, N. (1998). A study of conflict resolution in anti-bullying. *Hokkaido University bulletin of the Faculty of Education*, 64, 21-40.
- Takatoku, S. (1999). *Ijime mondai*. Tokyo, Japan: Tsugeshobosinsha
- Takekawa, I. (1993). *Sociology of bullying and school refusal*. Kyoto, Japan: Horitsubunkasha.
- Tolbin, R. L., Schwartz, D., Gorman, A. H., & Abou-Ezzeddine, T. (2005). Social-cognitive and behavioral attributes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26, 329-346.
- Yoo, A. J., & Lee, J. S. (1999).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peer victim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3), 107-121.